

광주 자치구들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쾌거'

한국매니페스토본부 '기초' 대상 5개 구 모두 SA 등급 동반 기록 광역 단위 종합이행률 전국 1위 남·동·서구 각 8·7·4년 연속 성과

광주 5개 자치구가 2026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초부터 90여일간 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우선 각 지자체에 민선 8기 공약이행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했고 이를 모니터링해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했다.

이후 지적 사항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고자 자료 보안을 요청했고 이것까지 검토해서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항목은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025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주민소통 분야(100점) ▲웹소통 분야(Pass/Fail) ▲일지도 분야(Pass/Fail)였고 각 항목을 다시 평가해서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 방식이었다.

등급은 점수에 따라 6개(SA, A, B, C, D, F)로 나뉘며 광주 5개 자치구는 모두 100점 만점에

90점을 넘어 최고 수준인 SA 등급을 받았다.

특히 기초지자체 공약이행 현황을 광역 단위로 종합해 완료율을 평가한 결과 광주 지역은 88.89%로 전국 7대 특·광역시(서울 83.22%, 대전 78.87%, 대구 76.32%, 울산 75.75%, 부산 71.25%, 인천 61.88%)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같은 방식으로 평가한 광역도 단위에서 1위는 전북(75.11%)이었는데, 이보다도 1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번 평가로 남구의 경우 지역 내 자치구 중 유일하게 8년 연속 최우수 등급 수상이란 쾌거를 거뒀다. 동구와 서구도 7·4년 연속 수상이란 의미 있는 기록을 세웠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및 행정기관의 실행 노력이 함께 한 덕분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면서 "주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남아 있는 공약 사업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공약은 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실현해야 할 핵심과제"라며 "민선 8기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은 주민과의 약속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서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재영기자



광주 광산구는 올해 골목형 상점가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정부 공모 사업과 연계한 상권 콘텐츠 발굴 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개최된 '첨단 골목상권 활력축제' 현장 모습. <광주광산구 제공>

광산구, 골목 상점가 '특화 상권' 육성 전면 개편

139곳 대상 질적 성장 도모

정부 공모 연계·지원단 가동

광주 광산구가 골목형 상점가의 정책 방향을 기존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면 전환하고, 특화 콘텐츠를 결합한 자생적 거점 상권 육성에 나선다.

12일 광산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역 내 골목형 상점가 139개소와 7천445개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정부 공모 사업과 연계해 지원에 나선다.

그동안 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자격을 확보한 광산구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골목 상권을 국가 지원망과 연계해 대

표 상권으로 키울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선정상인회와 수완나들목 등 2곳의 상점가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광산구는 시장 매니저 채용과 상인 역량 강화 등 맞춤형 인프라 개선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해당 상점가의 성공적인 특성과 전략 수립을 뒷받침하며, 성과를 주변 상권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점가 지정 업무와 온누리상품권, 광산사랑상품권 가맹 등록 등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골목상권현장지원단'을 전격 운영한다.

또한 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자금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구는 지난해 실시간 소품 판매(라이브 커머스)와 천원야장 등 단기 행사 위주로 진행했던 '머물고 싶은 골목길 콘텐츠 개발 사업'을 올해 수익 창출이 가능한 특화 모델 발굴로 전면 재편한다.

심사를 거쳐 경쟁력 있는 20여개 상인 단체를 최종 선정하고 각 상권의 감정을 살린 자율적인 콘텐츠 사업 운영비로 단체당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해 실질적인 상권 매출 증대를 견인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단순한 상점가 지정 확대를 넘어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골목 상권이 문화와 관광, 체험이 융합된 지역 고유의 자생적 거점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옥근기자

남구,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 기간 운영

16일까지 청사 1층 '기억 나무' 조성

광주 남구는 12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기억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13-16일 '진실과 생명 안전을 향한 노란빛 동행'을 주제로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의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남구청사 1층 로비에는 추모 공간 성격의 '생명이 싹트는 세월호 기억의 나무'가 조성된다. 노란 리본에 세월호의 기억과 안전 사회 구현을 다짐하는 약속을 적어 나무에 직접 매달 수 있다.

오는 15일에는 '세월호 참사 제12주기 기억문화제'가 엄수된다. 기억문화제는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이 마련된 백운광장 옆 양우내안에 앞 문화광장에서 열리며 오후 5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우리의 다짐 발언'과 문화예술 공연, 시민 참여 퍼포먼스 등이 전개되며 기억문화제가 열리는 장소 주변에는 주민들이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헌화할 수 있는 추모 공간도 마련된다.

남구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는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우리 사회의 아픔이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약속이다"며 "조용히 흔들리는 노란 리본처럼 우리의 기억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서형우기자

서구, 인도 위 전신·통신주 정비 착수

광주 서구가 주민의 보행 흐름을 방해하는 인도 위 전주와 통신주 등 지장물에 대한 전면 정비에 나선다.

12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다음 달까지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신주, 통신주, 지지선, 변압기 등 시설물에 대한 전소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업자(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시설물, 통신장비함 등 관련 설비다.

현장 조사 결과는 허가대상과 대조해 적법 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6월부터 위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연상기자

"복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받으세요"

연매출 2억원 이하...최대 30만원

11월까지 신청...예산 소진시 마감

광주 복구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에 나선다.

12일 복구에 따르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3억4천만원을 투입한다. 이는 광주 자치구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은 경기 침체 장기화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카드 결제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의 고정 비용을 줄여 실질적인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 2억원 이하 임차 소상공인으로, 카드 매출액의 0.4%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매출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다.

단,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복구는 올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 매출 기준을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신청은 오는 11월 말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온라인 또는 복구청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인 복구정장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구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1천9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평균 18만5천원을 지원한 바 있다. /윤찬용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야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